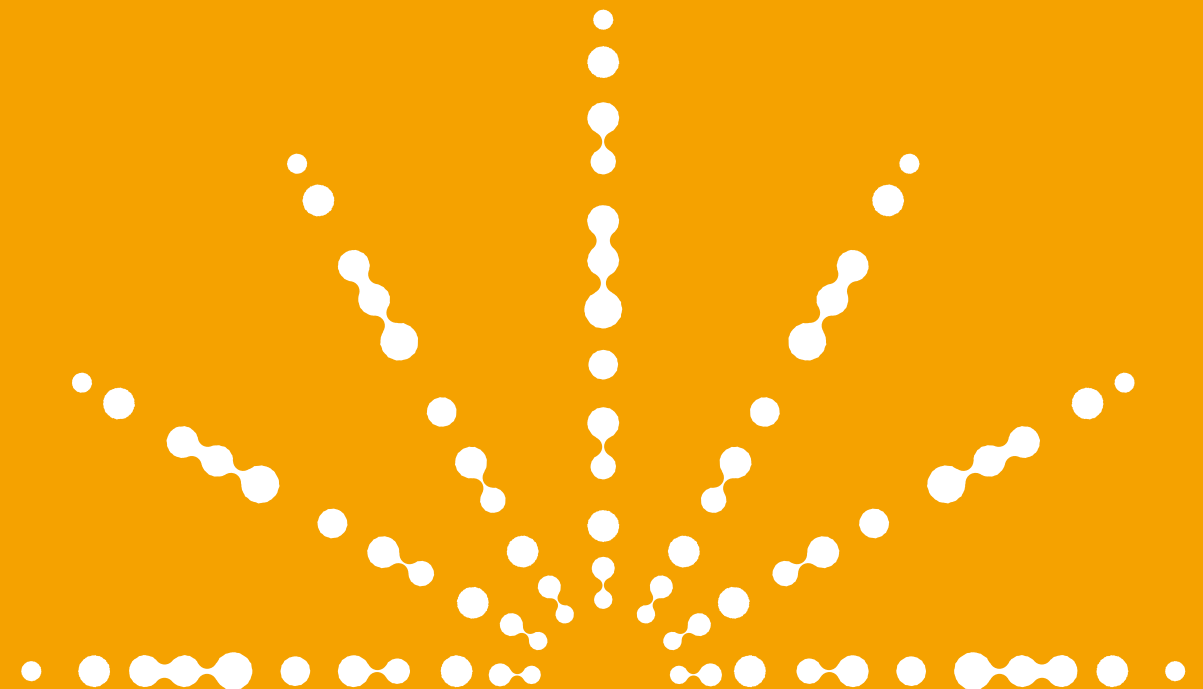




아티스트

2024



목차

8	아트경기 소개
9	행사안내
10	2024 아트경기 작가 목록
12	2024 아트경기 작가 소개
80	2024 아트경기 협력사업자 및 제휴사업자

아트경기 소개

24시간, 365일, 아트경기는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작가의 작품을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아트경기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시각예술작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미술시장 진입, 그리고 건강한 미술시장 발전을 위한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아트경기 사업모델의 독창성은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창작자와 유통자를 동시에 조명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작(작가)-유통(사업자)-소비·향유(대중)’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가는 사업자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미술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자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사업을 개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작가와 사업자 간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기획·지원하고, 이를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올해는 아트경기 작가로서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5인의 시각예술작가를 선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트경기 작가의 작품을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미술품 임대·전시, 아트페어, 아트경기 아트페어 등을 통해 선보입니다. 다각화된 미술시장의 형태를 반영하여 기획된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고 미술품 구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트경기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작가 발굴과 유통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사안내

미술장터
‘미술장터’는 미술품 소장 진입 문턱을 낮춘 가격대의 미술품 판매를 통해 중·저가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및 미술품 구입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판매를 개최합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부대행사를 기획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트페어
협력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주요 글로벌 성격의 아트페어에 아트경기 작가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작가의 미술시장 진입 경쟁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팝업갤러리
‘팝업갤러리’는 접근성과 유동성이 높은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에서의 전시·판매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미술품 감상 기회 확대와 소장을 유도합니다. 독창적인 주제와 기획이 돋보이는 행사로, 적극적인 작가 홍보와 판매를 진행합니다.

아트경기 아트페어
‘아트경기 아트페어’는 2024년 아트경기 판매사업 참여작가와 19년~23년 참여작가가 함께하는 아트페어로, 아트경기 브랜드 정체성을 제시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축제형 행사입니다.

미술품 임대·전시
‘미술품 임대·전시’는 도내 공공시설 및 민간기업의 로비, 방문객 공간, 사무 공간에 아트경기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여, 임직원과 방문객의 미술품 향유 기회를 높이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합니다.

제휴사업
‘제휴사업’은 미술품 유통분야 기업과의 협업을으로 아트경기 작가의 미술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유통플랫폼을 지원받아 미술시장에서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사업유형	행사명	일정	장소	기획
미술장터	오타쿠 바자르	6.27.~6.30.	수원컨벤션센터	무너만뮤지엄
	YOUNG1	7.30.~8.24.	H.Art1	상업화랑
	YOUNG	11월 중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팝업갤러리	The Collection Art Fair & Exhibition with 아트경기	10월 중	미정	아르떼케이
미술품 임대 · 전시	미술품 임대 · 전시	4월~12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칸 KAN
		7월~12월		미술로(주)
아트페어	Affordable Art Fair Singapore	11.7.~11.10	F1 Pit Building, 1 Republic Boulevard, Singapore	칸 KAN
아트경기 아트페어	아트경기 런 페스티벌	10월 중	갤러리 끼 파주	갤러리 끼
제휴사업	온라인 경매	미정	미정	서울옥션

Kang, Kayeon **강가연**
 Ko, Woori **고우리**
 Go, Huikyeong **고희경**
 Kwon, Sejin **권세진**
 Kwon, Hye Kyoung **권혜경**
 Kim, Kyunghan **김경한**
 Kim, Kyuhak **김규학**
 Kim, Minju **김민주**
 Kim, Sunyoung **김선영**
 Kim, Siyeon **김시연**
 Kim, Yeonghyeon **김영현**
 Kim, Younghwa **김영화**
 Kim, Woojin **김우진**^A
 Kim, Woojin **김우진**^B
 Kim, Jeongwoo **김정우**
 Kim, Joongok **김중옥**
 Kim, Juujuu **김쥬쥬**

Kim, Chohui **김초희**
 Ma, Suchang **마수창**
 Min, Hyewon **민혜원**
 Park, Kyoungmug **박경묵**
 Park, Dabin **박다빈**
 Park, Youngnam **박용남**
 Park, Jungwoo **박정우**
 Park, Chunhwa **박춘화**
 Bang, Sooyeon **방수연**
 Bang, Inhee **방인희**
 Sung, Seunghye **성승혜**
 So, Soobin **소수빈**
 Song, Minchul **송민철**
 Song, Seokwoo **송석우**
 Shin, Mijung **신미정**
 Shin, Sangwon **신상원**
 Shin, Yerin **신예린**

Sim, Yeji **심예지**
 Oh, Seungsik **오승식**
 Oh, Jooyoung **오주영**
 Lee, Sangyeob **이상엽**
 Lee, Sujin **이수진**
 Lee, Eunjoo **이은주**
 Lee, Jinyoung **이진영**
 E, Chanzoo **이찬주**
 Lee, Chelin **이체린**
 Lee, Taeheon **이태훈**
 Lee, Hanjeong **이한정**
 Lee, Heemyoung **이희명**
 Im, Suniy **임선이**
 Jun, Jinkyong **전진경**
 Jeong, Seoin **정서인**
 Miriam Sungwon Chung **정성원**
 Jung, Eunbyul **정은별**

Jung, Choulgue **정철규**
 Jo, Gayeon **조가연**
 Cho, Minah **조민아**
 Jo, Jae **조재**
 Cho, Taegwang **조태광**
 Choe, Myungeun **최명은**
 Choi, Bome **최봄이**
 Choi, Euncheol **최은철**
 Choi, Jaeyee **최재이**
 Choi, Jihyeon **최지현**
 Choi, Haeun **최하은**
 Choi, Hyeongjun **최형준**
 Han, Jimin **한지민**
 Hwang, Jinho **황진호**



강가연 Kang Kayeon

(b.1991)

강가연은 다변하는 것, 유동적인 것,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무언가에 주목한다. 자연의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중요성, 공존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작업으로 제시한다. '없는 풍경'과 'traces'로 구성된 작업은 'traces' 즉 '흔적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쌓인 '흔적들'을 재구성하여 '없는 풍경'을 제작한다. 나뭇재나 흙, 동을 부식하는 기법, 각종 광물의 안료를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방법의 표현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없는 풍경>(갤러리 로, 2023), <없는 풍경-시간의 흔적>(FORERIUM, 2024), <Cosmicscape>(갤러리라메르, 2024) 등이 있다.

없는 풍경 2022_2

80.3x116.8cm, 장지에 동 부식, 나뭇재, 흙, 광물안료, 체질안료, 2022



고우리 Ko Woori

(b.1989)

고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 발생한 불안정한 감정의 기류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신체성을 포함한 회화 물성 실험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과 2022년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와 2021년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하찮고 처연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여>(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23), <눈에 보이지만, 손 틈새로 빠져나가는 것들>(박수근미술관, 2022) 등이 있다.

하찮고 처연하지만 아름다운 것들 2
134x134cm, 바스질한 캔버스에 유화, 실, 2023



고희경 Go Huikyeong

(b.1997)

고희경은 현대사회에 살며 느꼈던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감정을 인물로 형상화시켜 작업한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인 '수면'이란 작품 연작을 진행 중이다. '수면' 연작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공동체를 겪으며 느꼈던 불편하고 불안했던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편한 시선들과 마주했을 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피하는 모습을 표현하지만, 그런 시선들에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또한 담겨있다.



수면
162.2x130.3cm, 장지에 채색,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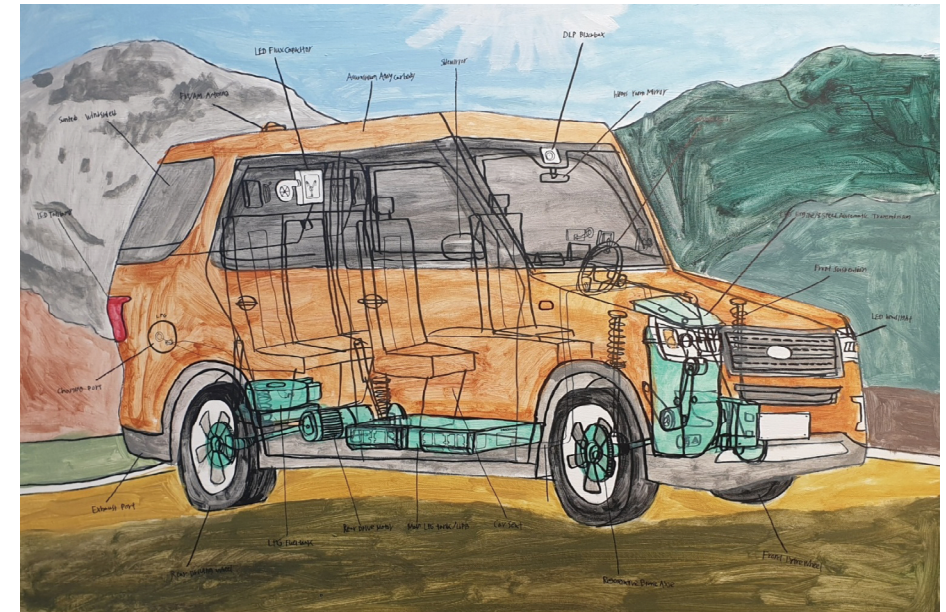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으로는 <더 보기>(가온갤러리, 2023),
<성장할까요>(삼각산 시민청갤러리, 2023) 등이 있다.



권세진 Kwon Sejin

(b.2001)

권세진은 어릴 적부터 특히 자동차나 기계류에 관심이 많고 그 구조를 탁월하게 이해했다. 자동차를 그리며 내부 계기판이나 운전대, 엔진, 기어 레버 등 세부 부품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묘사한다. 권세진은 작품의 소재를 언제나 일상생활 동력 에너지에서 찾는다. 현재는 지하철과 버스의 움직임을 작동하는 부속품에 집중하고 탐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과 그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평범한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은 주제이고, 소재이며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 드로잉부터 오일페인팅, 도예까지 여러 매체를 활용한 작업의 과정은 권세진만의 서술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여정이다.



Landrover Range Rover
65.1x90.9cm, 캔버스 위에 아크릴양판, 2023



권혜경 Kwon Hye Kyung

(b.1984)

권혜경은 개인의 삶, 그것과 접점을 가진 사회적 공감대, 회화에 대한 성찰을 회화 작품으로 녹여낸다. 최근 그의 작품은 임신과 출산, 육아 경험을 토대로 시작한 프로젝트 'MOTHER ZONE'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하는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며 사회 각각의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차별과 불평등, 자아실현과 육아 사이의 갈등, 경력 단절, 고립 등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빠빠이 혜경>(갤러리 조선, 2023)이 있으며 2014년 자를란트주 장학생 (아카데미 데어 쿤스테 베를린, 독일)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Pale 무직 인터네셔널
193.9x259.1cm,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2021



김경한 Kim Kyunghan

(b.1981)

김경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복적으로 응시하며, 비인과적인 세계의 모호함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때로 비생산적인 노동처럼 느껴지는 시간과의 동행을 회화적 수행의 요체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희미하게 떠오른 형상과 구성을 최소한의 단서 삼아 화면 속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채워나간다. 작가에게 캔버스는 테두리의 경계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유주이자, 그 속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조형적 질서를 채워나가야 할 빈 석판이기도 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7일의 벽>(포네티브스페이스, 2023), <1과 1이 만날 때>(정부서울청사 갤러리, 2023) 등이 있다.

시들지 않는 선
163x163cm,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2023



김규학 Kim Kyuhak

(b.1959)

김규학은 한적한 시골의 어느 들판이나 숲길, 동네 어귀를 회화로 표현한다.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한 적막함, 산등성이 언덕배기 허름한 동네, 허물어질 것 같은 기와지붕과 담벼락 위의 뭉게구름, 골목 안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 뛰어노는 아이들을 표현하며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의 기억을 회화에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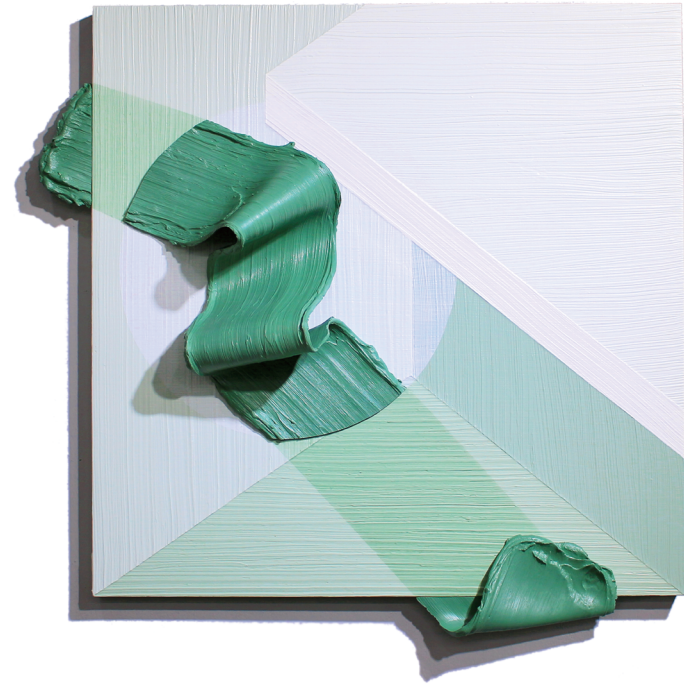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21세기 도시-모순과 혁신> (KMJ아트갤러리, 2024), <위기의 도시>(윤아트갤러리, 2023)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인천미술은행, 양평국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김민주 Kim Minju

(b.1997)

김민주는 사적 공간 안에서 눕고, 앉고, 보고, 쓰는 행위들을 통해 이야기를 붙잡아가고, 붙잡은 이야기를 물감 속에 응축하여 조각적 회화로 탄생시킨다. 작품 속 물감은 납작한 캔버스를 벗어나 몸을 부풀리고 정해진 공간을 벗어나는 행위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는다. 작가는 평면을 넘어 공간으로 표출되는 물감 덩어리처럼 개인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과 공유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업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 Room>(HNNH갤러리, 2023) 등이 있으며, <2024 Fresh>(구미갤러리, 2024), <CICA Contemporary Landscape> (CICA미술관, 2023)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김선영 Kim, Sunyoung

(b.1984)

김선영은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서 만나는 풍경을 심리적 풍경으로, 체화된 풍경으로, 분절된 신체로 표현해 왔다. 안과 밖, 덩어리와 조각, 부분과 전체, 열린 것과 닫힌 것, 움직이는 것과 정지한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몸과 마음 등 뚜렷하지 않은 경계에서 고민 없이 받아들이던 모든 것을 의심하며 뒤편에서 잊혀진 작은 감정에 주목한다.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되던 풍경들과 벌어지는 틈을 통해 주체 밖의 것에 관심을 두며 '나'라는 주체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계에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



돌, 하나가 되는 조각
192x260cm, 장지에 아크릴, 파수, 분채, 2023

주요 개인전으로는 <정지, pause>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8), <텅 빈 바다>
(점재정선미술관, 2017) 등이 있다.



김시연 Kim Siyeon

(b.1971)

김시연은 사적인 서사에서 기인한 일상의 내재한 불안을 함축적으로 담아낸다. 생활 속의 재료를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조각적인 설치를 사진으로 담아 평면으로 전환하여 표현한다. 소소한 생활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치유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비스듬히>(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23), <Thread>(두산 갤러리 뉴욕, 2012)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성남아트센터 미술은행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비스듬히08
35x35cm, Archival pigment print, 2023



A person is seated on a white surface, wearing a black headscarf and a large, dark, sculptural piece of clothing that covers their torso and arms. They are barefoot. Strong shadows are cast on the white background.

Dynamic_SC_10
32.1x60x38.2cm, vege

나와나, 나와너, 나와디
53x38cm, 종이에 연필, 주먹, 2024



김우진A Kim Woojin

(b.1976)

김우진은 특정 사회를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개인에게 드러나지 않거나,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개인을 구조화하는 장치를 찾아낸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작업을 통해 ‘참/거짓’, ‘좋은 것/나쁜 것’이라고 여겨진 것에 균열을 띄우고, 질문이 시작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The Freezing Point, The Evaporation Point> (김종영미술관, 2022), <다음을 듣고 따라하십시오>(대안공간루프, 2019), <Brave New Exercise: Memorizes Movements>(도쿄아트앤스페이스, 혼고, 2017)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우란문화재단, 송은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우진B Kim Woojin

(b.2000)

김우진은 발달장애 서번트 작가로 재미있는 캐릭터를 그리며 다양한 인물의 모습들을 작가만의 위트를 담아 표현한다. 2023년에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표현한 ‘어깨동무 시리즈’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시 개최 외에 시화집, 엽서, 카드, 컬러링 북 등으로 그림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2024년 현재 코웬전자산업의 작가로 소속되어 있으며,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미술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정우 Kim Jeongwoo

(b.1989)

김정우는 현실과 인식, 그리고 가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예술이 삶과 세계 내부에 존재하는 실존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대상의 기능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켜 그것의 본질과 별개인 가변적인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실재함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물리적 상태를 통해 비유한다.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미지들이 본체를 뒤덮고 있는 가변적인 특성임을 자각하고 허상의 이미지와 실체 하는 대상을 대조하여 보다 직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상태변화 No.2

163x130cm, 패널에 시멘트와 먹, 아크릴, 페인트, 블랙 젯소, 2023

주요 개인전으로는 <상태변화>(공주문화예술촌, 2023), <믿음의 현상학>(행궁길갤러리, 2022) 등이 있다.



김중옥 Kim Joongok

(b.1989)

김중옥은 도시와 시골,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무의식과 의식, 구상과 추상 사이의 회화를 탐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자 한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한 시골, 그의 조상 때부터 살던 집과 선산 그리고 작업실이 있는데 이곳은 작업과 정신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오래 연구해 온 선산, 작업실 주변에 사는 강아지, 인간 등 주로 자연물 및 대상과 본인을 동일시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한다. 드로잉, 회화, 비디오, 설치, 도자를 다루며 현재 작업실 주변에 사는 시골 강아지 프로젝트와 풍경 연작을 진행하고 있다.



Summer Landscape
89x130cm, 캔버스에 유채, 에폭시, 스티커, 2022

주요 개인전으로는 <Talking Dog>(Inrgang 갤러리, 2022), <Weald>(아노브 갤러리, 2020) 등이 있다.



김쥬쥬 Kim Juujuu

(b.1990)

김쥬쥬는 전통적 조각 재료인 도자를 주된 매체로 사용하여 점토의 물성과 표현기법을 탐구한다. 주제 '되어보기'를 통해 코스튬 플레이어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 타인이 되어본다. 작가의 '되어보기' 상상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창작 재료인 '점토'라는 매체를 통해 재현됨으로써 영구적 물질로 실현된다.



Madame Pompadour loves Apple
29x32x24cm, Porcelain, Walnut wood, Bras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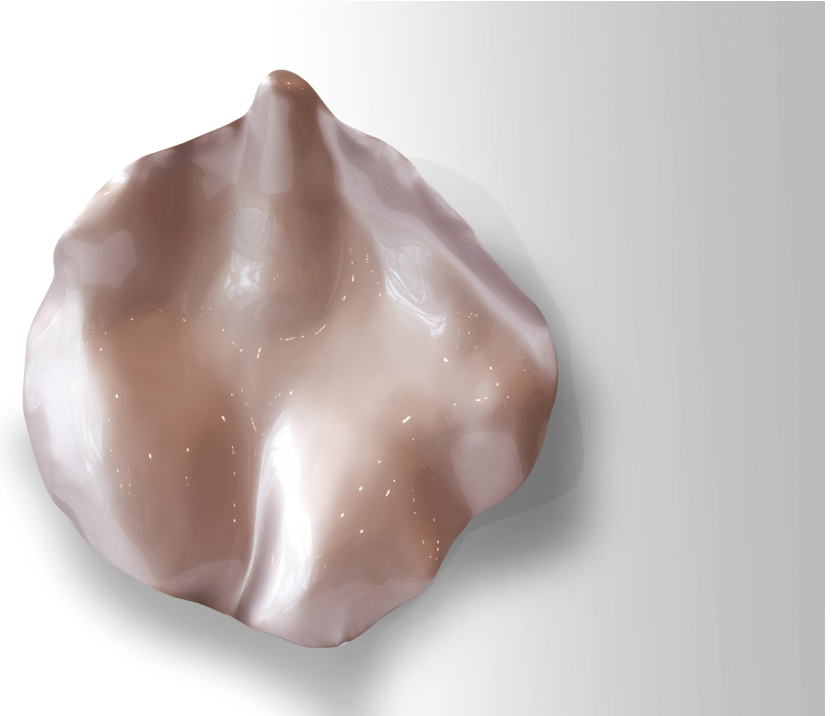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Fanciful Beauty>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9), <Customized Body>(신당창작아케이드, 2017)가 있으며, <自畫象>(스페이스오매, 2022), <Quantum Leap: 비약적 도약>(송원아트센터,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김초희 Kim Chohui

(b.1978)

김초희는 조형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기반하여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자연현상 속에서 시간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순간의 영원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꽃잎이 가지는 고유한 이미지들을 여러 조형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고 시각적 이미지와 본질적 이미지 사이의 관계성을 미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회화, 드로잉, 점토, 도자기, 플라스틱, 금속, 레이저 필름,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김초희 개인전>(폴스타 아트갤러리, 2021), <김초희 조각 설치전-꽃불의 미학>(인덕대학 아정미술관, 2017) 등이 있다.

꽃잎2022a_silver
알루미늄 위에 우레탄도장, 85x80x10(h)cm, 2022



마수창 Ma Suchang

(b.1997)

마수창은 뇌병변 장애로 몸이 자유롭지 않아 그림을 그리는 데 제한이 많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통해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든다. 작가는 좋아하는 동물을 그림에 담고 그들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친구를 만나 어쩔 줄을 모르는 어린 토끼나 강아지들, 간식을 손에 들고 고민하는 고양이, 꽃비를 맞으며 행복해하는 소 등은 그의 훌륭한 그림의 소재가 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JUMP>(구구갤러리, 2022), <마수창작가 초대전>(굿월스토어, 2022)이 있으며 <구구갤러리 초대전>(구구갤러리, 2023), <일어서는 사람들 기록전>(안양아트센터, 2022)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오렌지 가재가세요 여러분
45.5x53cm, Oil on canvas, 2022



민혜원 Min Hyewon

(b.1983)

민혜원은 인간의 감정을 풍경화의 소재로 활용한다. 작가가 경험한 장소와 기억은 보는 이에겐 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다가가며,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그들만의 장소와 경관으로 변모한다. 작업의 소재가 경이로운 자연 풍경이나 의미 있는 소재자가 아닌 이유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개인 공간의 사소한 발견에서 작가는 따듯한 감정과 위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물이나 계절의 변화로써 표현되는 감정 상태를 매개체로 바라보는 이의 현재가 어떠한지, 불필요한 상념들 속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오래 그곳에 남아>(SPACE M, 2024), <나를 마주하는 시간>(ARTIAN SEOUL, 2023)이 있다.

온전한 집
54x31cm, 리넨에 먹과 과슈, 2024



박경묵 Park Kyoungmug

(b.1981)

박경묵은 주변의 자연물들을 알레고리 삼아 먹의 물성을 활용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수묵화 작가이다. 수묵화를 연구하면서 고전적인 전통 회화의 현대화를 모색해 왔으며, 특정한 형태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먹을 주재료로 전통 수묵화의 장점을 살려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그의 작업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유하면서도 동시에 늘 새로움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春夢五六島
130x223cm, 한지에 아크릴,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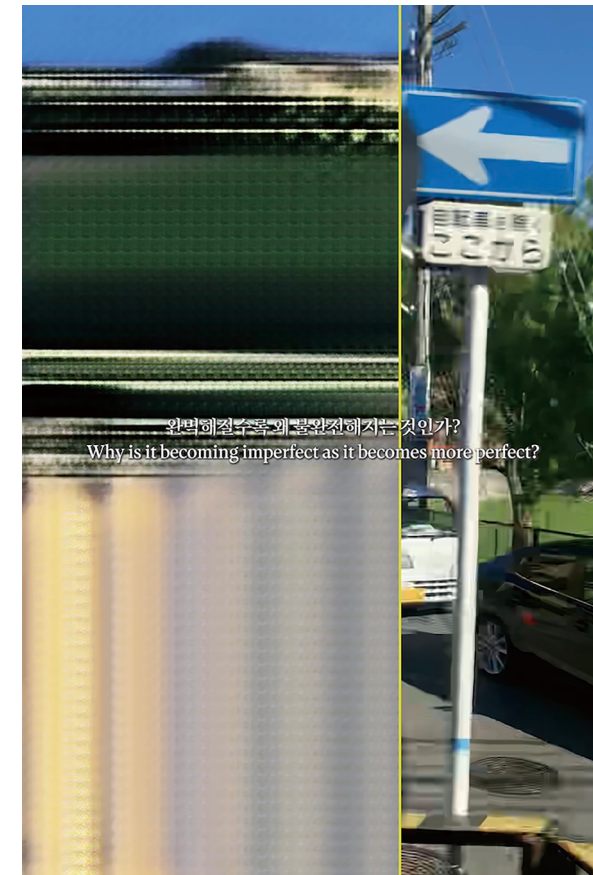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푸름과 붉음의 금빛산수> (red L gallery, 2024), <Korean Art London> (Mall Galleries, 2023) 등이 있으며 <먹빌_肅答하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2024), <신도원도> (이천시립미술관, 2023)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박다빈 Park Dabin

(b.1995)

박다빈은 모든 것을 예측, 제어할(통제) 수 있게 하려는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특히 기술과 인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인간다움'이라는 개념에 대해 탐구하면서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기술의 교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탐구한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넥스트코드2023: 다이버, 서퍼, 월드빌더> (대전시립미술관, 2023), <To be anything, to be noting> (탈영역우정국, 202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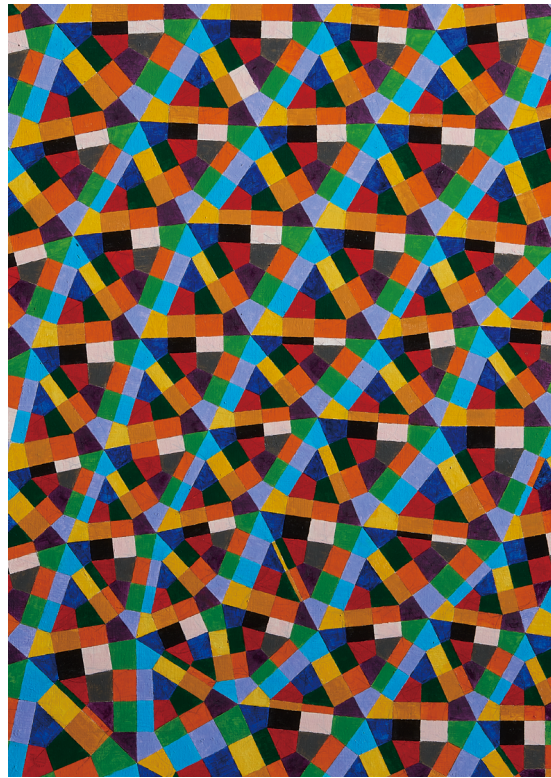
Inhale-Exhale
4분47초, 단채널영상, 2022



박용남 Park Youngnam

(b.1964)

박용남은 오브제와 자연물을 대리석의 색깔과 병치시킨 메타포 작업(1990-2010)과 거시적인 우주와 미시적인 원자의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연 질서를 표현하는 작업(2010~)을 전개한다. 해바라기씨의 규칙적인 배열을 나타낸 작업은 생존을 위한 씨앗들의 반란이며 이는 수학적 공식(포깅 방식)까지 도출한다. 여기에 그동안 색깔에 대한 작업의 갈급함이 평면 작업으로까지 이어진다. 3차원의 시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서 작업하며 색깔의 대비와 관계를 기하학적인 도형(테셀레이션)의 관계로 나타낸다.



연기2 緣起
72x60cm, oil on canvas, 2020

주요 개인전으로는 <AMASS 자연의 자서전2>
(갤러리 cnk, 2022), <자연의 자서전1>(경인미술관,
2019) 등이 있다.



박정우 Park Jungwoo

(b.1992)

박정우는 조각의 의식과 무의식, 자본주의와 휴머니즘, 개인과 집단, 자아(自我)와 타아(他我), 쾌락과 죄의식 등이 서로 깊숙이 연결된 현대인의 존재 방식을 예술의 장으로 이끈다. 그가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신체성은 욕망의 디스토피아적 향연 속에서 끝없이 분열하는 우리 실존의 내면을 묵묵히 형상화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내용은 여전히 중요하다,>
(mM 아트센터, 2023), <현대인의 금융생활>
(대안문화공간 루트, 2021) 등이 있으며,
<Heal the world>(oci 미술관, 2021),
<업클로즈>(M컨템포러리, 2020)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사드의 가위바위보 no.2
26x62x41cm, Marble, object, 2023



박춘화 Park Chunhwa

(b.1978)

박춘화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현재 주변 환경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현상들과 작업의 연결 지점을 찾아 회화로 탐구하고 있다.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들을 탐문하며 그곳에서 끌어낼 수 있는 보편적 정서와 본인의 내밀한 지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재구성, 편집하여 작업이 진행된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풍경을 회화로 표현하고, 개별적 풍경을 통해 불안, 공허, 결핍에 대한 공감으로 예술적 위로를 제시하려 한다.



32°F
145x194cm, 장지에 아크릴, 2023

주요 개인전으로는 <길을 가는 동안>(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2023), <밤의 시작詩作>(양주시립미술 창작스튜디오) 등이 있다.



방수연 Bang Sooyeon

(b.1984)

방수연은 모호한 순간성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일상의 풍경 속에서 현재를 감각하며, 지금을 벗어난 사건을 추적한다. 오랜 시간 바라본 풍경 속에서 순간을 벗어난 장면으로 모호하고 흐릿하게 겹쳐내어 그리는 작업은 연약한 현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곳을 벗어난 순간으로의 감정이다. 보이는 것이 고정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서 ‘바깥’으로의 세계가 열려 있음을 밝히고자 하며, 순간-지금-오늘-밤-파동의 키워드로 전시의 이야기를 담아왔다.



Reversed island (뒤집힌 섬)
97x162.2cm, oil on canvas, 2022

주요 개인전으로는 <사이의 선>(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2), <달의 눈>(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2021), <오늘감각>(이유진 갤러리, 2020) 등이 있다.



방인희 Bang Inhee

(b.1975)

방인희는 옷과 기억을 병치시킨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삶과 욕망을 '기록'한다. 작가에게 옷은 삶의 연장(instrument)이자 확장(extension)이다. 초기작에서 포착되는 옷과 관련된 기억, 몸과 옷의 관계, 옷에 묻은 얼룩과 주름 등은 오랫동안 사용된 사물에 기인한 흔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는 디지털 콜라주와 전통적인 판화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데 단순히 스웨터나 옷의 이미지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아닌 '디지털 에칭(Digital Etching)'을 시도하여 작업을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그녀의 기억>(더숲 갤러리, 2023), <창과, 거울>(더스테이힐링파크 나인스도어, 2021)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인천문화재단, 설미재미술관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One spring day
130x80cm, Pigment print and collagraph, Acrylic ink on Paper, 2024



성승혜 Sung Seunghye

(b.1984)

성승혜는 보통의 날들과 평범한 것들의 재발견을 주제로 드로잉 및 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시각적 이슈들을 이상적으로 화면에 옮기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감정적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보통의 상황들과 별 볼 일 없는 일상들이 때로는 특별해질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감정적 공유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성승혜 초대전>(백희갤러리, 2023), <우리 동네 탐구생활>(경기천년길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용기는 파도를 넘어>(단원미술관, 2020), <Love&Respect>(AK갤러리, 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여행자
45.5x60.6cm, 캔버스에 과슈, 2023



소수빈 So Soobin

(b.1983)

소수빈은 주로 식물이 성장하는 순환 구조 안에서 식물체가 가지는 증식·분열·반복의 과정을 식물의 형태와 패턴을 통해 연구한다. 연작에는 생명체의 또 다른 특징인 종적 번식을 향한 분투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무한을 암시하는 짙은 포자들, 계속 증식하는 듯한 화려한 원형 세포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잎과 줄기가 그에 해당한다. 꽃과 암술, 수술을 확대해서 묘사한 작품을 통해 전체적으로 생명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전제하고 있다.



Tree 4
60x90cm, Beads, oil on canvas, 2021

주요 개인전으로는 <New-ecosystem: Plant technology>(인천아트플랫폼, 2023), <포스트 식물: 감각하는 식물들>(학교재 아트센터, 2022) 등이 있으며, 경기도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박물관, 서울시, 안국약품, 양주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송민철 Song Minchul

(b.1977)

송민철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형상을 재고한다. 점과 점 사이의 선, 선과 선 사이의 면, 면과 면 사이의 공간으로 다양한 형상을 작업하며, 벽에 걸릴 것은 바닥으로 내려오고 바닥에 놓일 것은 벽에 걸리듯이 인간의 지각과 인식을 끊임없이 일깨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Square moon>(금천예술공장 PS333, 2021), <물의 말>(수원시립만석전시관, 2017)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Museum of Young Art(MOYA)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equal in square, circle, triangle
150x80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유화, 2023



송석우 Song Seokwoo

(b.1993)

송석우는 주로 인물과 사회적인 관계를 파악하며, 개인의 서사에서 비롯해 현재는 사람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몸짓 언어와 퍼포먼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회적인 원리를 탐구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유영하는 몸짓들>(신사옥, 2022), <Wandering Wondering>(아트비트 갤러리, 2020)이 있으며, 크라스노야르스크 비엔날레 기획전을 비롯해 핀란드국립박물관, 천안시립미술관, 아트스페이스3, 문래예술공장, WESS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신미정 Shin Mijung

(b.1983)

신미정은 거대 서사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되어 잊혀진 사람들의 흔적을 추적한다. 그는 구술 채록과 답사 등의 필드워크(fieldwork)를 통해 권력관계와 지정학적 맥락에서의 정체성, 아카이브, 갈등, 이주, 풍경 등에 대한 질문을 기반으로 영상 작업을 진행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도시X섬X아카이브>(SeMA 벙커, 2021)가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 <제23회 송은미술대상전>(송은아트스페이스, 2023), <경계에서의 신호>(남서울미술관, 서울, 2021), <점멸하는 집>(인사미술공간, 서울, 2021) 등이 있다.



신상원 Shin Sangwon

(b.1991)

신상원은 삶과 존재함의 표현 방법을 먹, 나무, 종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흰 종이에 점을 찍어 나가며 존재함으로 인한 행동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평면 작업은 입체와 퍼포먼스로 나아가며 한 가지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하려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2308181900>(디언타이틀드 보이드, 2023), <허의 공간>(갤러리 팔조, 2021) 등이 있으며, <봄>(10 갤러리, 2024), <다방>(BHAK, 2022)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2212011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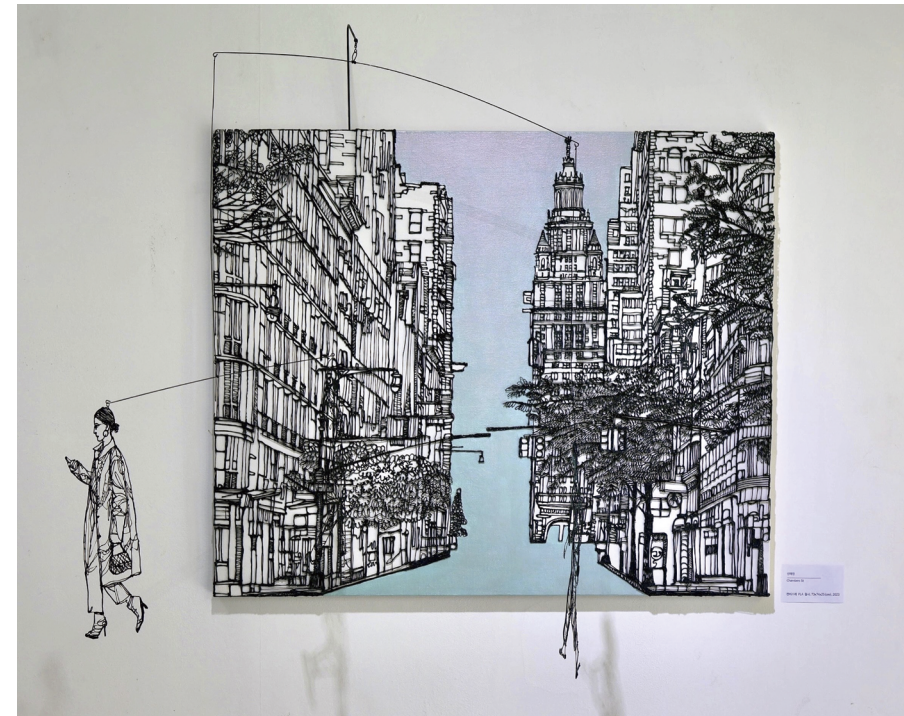
90.9x72.7cm, 나무 판넬 위 아크릴과 홍성지에 수록, 2022



신예린 Shin Yerin

(b.1998)

신예린은 현대적 재료인 3D 펜과 PLA를 사용하여, 도시 풍경의 선적 재현을 통해 현대인의 특성과 도시 공간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주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제작하는데 모빌형식으로 만들어 계속 움직이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변화를 시도한다. 작품을 통해 도시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Around: 도시와 관계>(스페이스어반, 2023)가 있으며 <우연히, 호수>(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24), <Action, less>(아트살롱, 2023)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Chambers St
61x73x30cm, PLA, 캔버스에 아크릴, 철사, 2023



심예지 Sim Yeji

(b.1997)

심예지는 몸과 공간, 그리고 무의식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그는 몸의 표피를 찢어 내부 영역에 천착하는 초현실적인 행위로 몸과 주변 영역을 해체하고 통합한다. 그는 다양한 영역을 유영하고 횡단하는 몸과, 그 영역이 넘나드는 매개적 장소인 몸을 탐사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불균형한 것들을 나는 좋아해>(행궁길갤러리, 2023)가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 <굳이 떠올리는 유난>(군포문화예술회관, 2023), <Way Back Home>(넥스트 뮤지엄, 2023), <나래전>(갤러리 일호, 2023) <청년터전>(고색뉴지엄, 2022) 등이 있다.

무제

45.5x53cm, acrylic, color pencil, pastel, pencil on Korean paper, 2023



오승식 Oh Seungsik

(b.1998)

오승식의 회화는 시와 짝을 이루며, 사물에 자신의 감정 상태와 영감 등을 추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의 회화는 제목과 그림이 매칭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를 읽어보면 비로소 작가의 열망, 꿈, 고뇌와 사랑이 그림에 묻어 나온다. 꽃, 나무, 새가 자연 속에서 어우러짐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소외됨 없이 그 속에서 같이 동화되어 추억을 쌓아간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꿈 속 이야기>(군포시생활문화센터 갤러리홀, 2023)가 있으며 <느리게 걷는 마음>(사단법인 로아트, 2023), <Dreamability>(비채아트뮤지엄,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꽃밭에서 너를 생각하며
39.4x59.2cm, 종이에 색연필, 2023



오주영 Oh Jooyoung

(b.1991)

오주영은 리서치 기반 예술가로, 게임, 인공지능 챗봇 등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해 현대 과학, 기술의 한계와 또 다른 가능성을 탐구한다.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대 기술의 저변에서 배제되거나 숨겨진 이들의 서사, 장치, 배경을 드러내는 작품을 여러 매체를 이용해 드러낸다.



줄라라-β (Zolara-β)

우리의 맥박은 우주의 리듬처럼 편안했죠,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Our pulses harmonize with the rhythm of the cosmos, but your arrival...

주요 개인전으로는 <부적절한 조감도>(공간일리, 2022),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자>(플레이스막2, 2020), <주사위 게임>(백남준아트센터, 2020) 등이 있고, <투유: 당신의 방향>(아르코미술관, 2022), <온라이프>(경남도립미술관, 2022),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대전시립미술관, 2021)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이상엽 Lee Sangyeob

(b.1983)

이상엽은 노트북이라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현대 사회의 흐름을 관찰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함축적 단어와 색으로 요약하여 전통적인 회화 재료와 기법으로 나타낸다.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시태그 단어인 '사랑(Love)', '생명(Life)', '돈(Money)' 세 가지 단어를 노트북 크기로 제작한 캔버스에 담고 배치하는 'Text 시리즈'를 전개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디지털 상상-너를 그리는 시간 I>(청화랑, 2023), <디지털 상상-사랑, 생명, 돈>(성남큐브미술관, 2021) 등이 있으며 <En-countering: 마주하다>(갤러리 반디트라소, 2023), <강준영·이상엽: 이렇게 우리가>(아트코드 갤러리, 2022)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이수진 Lee Sujin

(b.1980)

이수진은 일상 세계의 특정한 경계영역에 나타나는 빛, 기억, 소리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징후와 감각에 관심을 두고, '과거-현재-미래' 시간성 사이에 흐르는 동시대 유동하는 개념들을 재구성하여 설치, 퍼포먼스, 조각, 평면, 영상 등으로 작업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 개인전 <텔릭>(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서울, 2023), <돌과 유리 하이킹>(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22)을 비롯하여 <회화 아닌>(대구미술관, 2023), <국회사무처 ACC 미디어아트 초청전>(대한민국 국회 본관, 2023) 등의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고 대구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은주 Lee Eunjoon

(b.1967)

이은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간'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여 사진과 회화를 결합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퇴색-프랑스 풍경', '퇴색-남대문과 고궁 풍경', '이조시대 한국화를 차용한 풍경', '프랑스 사진가 오젠앙제의 사진 이미지를 회화로 표현한 프랑스 풍경', '절기마다 달라지는 풍경' 등의 시리즈 작업을 통해 24절기의 풍경을 표현하여 시간성이 드러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4절기-존재와 시간>(토포하우스, 2023), <파리.. 아침 산책>(갤러리 마노, 2022) 등이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진영 Lee Jinyoung

(b.1993)

이진영은 집중과 몰입, 인내의 감각을 밀어내는 디지털 감각에 반하여,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조각을 만들고자 한다. 이모지(Emoji)는 문자 언어를 대신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입력되고 변형되고 또 폐기된다. 클릭 한 번이면 쓸 수 있는 가볍고 납작한 이모지를 시간과 노동을 들여 부피와 무게, 질감을 지닌 조각으로 만들어 낸다. 물리적인 실체 없이 가상 세계를 떠다니던 이모지를 다시 물질과 신체로, 장소와 시간으로 돌려세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콘크리트 프루프>(성곡미술관, 2023), <Face with Tears of Joy>(유영공간, 2022)가 있으며 <바흐티노프 마스크>(옹노/부연, 2023), <와일드 번치>(디스위켄드룸,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포토
10x20x6cm, 석고, 2023



이찬주 E Chanzoo

(b.1987)

이찬주는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라는 주제로 동시대의 사회를 공사 현장, 산업시설로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대학 시절에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경험한 것들에 영감을 받아 작업한다. '빌딩', '다리 시리즈'는 현실의 불안, 편견, 갈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열기구', '달 시리즈'는 이상과 목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가로등 시리즈'는 기억해야 하는 도시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한다. 시대를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현시대를 기록하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길 바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물어보는 노동 2>(전태일 기념관, 2022), <D-Plastic Art: Water word>(오픈스페이스 블록스, 2022)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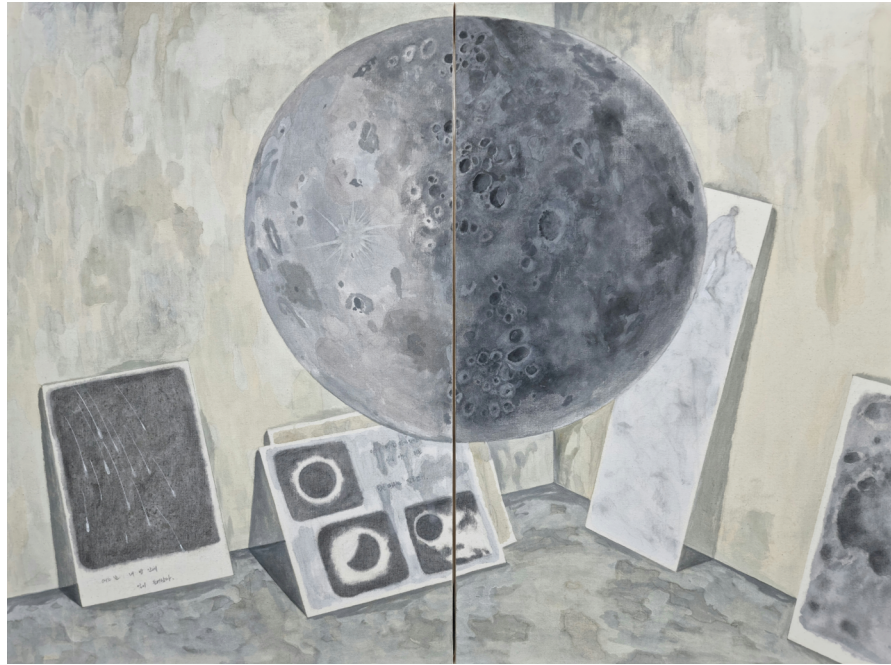
우리집 시리즈 11호
161x30x30cm, 종이, 나무, 흙, 시멘트, 2022



이체린 Lee Chelin

(b.1993)

이체린은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감정들 그리고 그러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에 관심을 가진다. 최근의 작업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자극인 공간과 환경을 주제로 하며, 공간과 사람의 관계성을 탐구하여 시각화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나는 이것들을 마주한다>(사이아트 도큐먼트, 2022), <보통의 기록>(CICA Museum, 2021)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성남문화재단,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태훈 Lee Tae-hoon

(b.1983)

이태훈은 1,200°C의 가마에 용융된 유리를 파이프에 말아 올린 후 바람을 불어넣어 작업하는 'Glass Blowing'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Filigree cane' 시리즈들은 이탈리아 전통 표현 기법으로 창작자의 제작 방식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교하고 얇은 수천 가닥의 선으로 훑날리는 민들레 홀씨를 표현한 작업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순간, 미디어를 통하여 경험한 곳, 미지의 공간 등을 상상하며 작가의 머릿속을 거쳐 손으로 표현되고 제작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Filigree glass_홀씨>(모노하 한남, 2023), <디티람보스>(롯데백화점 동탄점 엘리먼트, 2023) 등이 있다.



이한정 Lee Hanjeong

(b.1981)

이한정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자연 풍경의 표정을 수묵으로 담아낸다. 중국과 미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색감의 풍경 작업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주묵(붉은 먹)을 이용한 바위 시리즈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우리나라 시골 풍경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을 수묵채색 기법으로 표현한 <풍경의 표정>(이랜드스페이스, 2017),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시절 경험했던 대자연의 여러 표정을 담아낸 <고요>(도로시 살롱, 2020), <호흡의 시간>(문화공간 Kki, 2021), <붉은 겹>(A Bunker, 2022), <Rock>(히든앳갤러리, 2023)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오산시립미술관, 이랜드문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호수
50x72.7cm, 한지에 수묵채색, 2022



이희명 Lee Heemyoung

(b.1979)

이희명은 2006년 식물 설치 작품을 필두로 현재까지 여성성과 자연을 주 소재로 내면에 대한 다층적 시선을 회화와 설치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화적 상상력과 신화적 상징성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현하며, 미적인 포용의 긍정성과 미지의 불온한 그림자를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숲과 꿈과 빛>(갤러리 호호, 2023), <우연의 방>(아트비트갤러리, 2021), <서정의 살결>(자하미술관, 2019) 등이 있으며 2006년 중앙미술대전 수상을 시작으로 2006~2007년에는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였다.

The Siren
162x390cm, Acrylic, Gouache on Canvas, 2013-2023



임선이 Im Suniy

(b.1971)

임선은 시대마다 변화하는 흔들리는 풍경과 몸을 통한 선택적인 '몸'이라는 육화된 시지각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작업해 왔다.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시각, 지각적 진리의 모호함으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인간의 주체에 관해 이야기한다. 최근에는 노년의 수평적 시간을 통해 신체에 나타난 삶의 흔적과 몸의 무의식적 행위에서 삶의 함축된 층위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삶의 현상과 공존의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IMSUNIY

주요 개인전으로는 <Transcendental Time: 초월적 시간>(이응노의 집, 2023), <바람의 무게- #2 흩어지고 다다른 곳>(우민아트센터, 2022)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등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Difficult Eyes 4
90x90cm, 디지털프린트, 2010



전진경 Jun Jinkyong

(b.1973)

전진경은 사회 현장에 밀착하여 사회 고발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이자 액티비스트이다. 빈 공장에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점거예술을 기획하고 해고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연대로 농성 천막 드로잉 작업을 진행했다. 2021년부터 해고 노동자 아내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신체의 근육으로 버티는 힘>에 대한 회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등산이 나를 살렸어>라는 주제를 통해 '견디는 힘은 정신력이 아닌 근육에서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등산이 나를 살렸어> (인디프레스갤러리, 2024), <기 라는 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임대공간, 2021) 등이 있으며, <새날>(무등갤러리, 2023), <생생화화> (영은미술관, 2022)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안심하는 마음
130x97cm, 캔버스에 아크릴, 2022



정서인 Jeong Seoin

(b.1988)

정서인은 태운 종이를 아주 얇게 겹겹이 붙여 산과 바다 등의 자연 풍경을 표현한다. 산수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이 바라본 풍경으로 관찰 대상을 전환해온 작업은 우연적 효과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태워짐을 이용해 화면을 만들어낸다. 태워진 형상 자체가 드러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더욱 추상적인 형태가 강조된 회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태워진 풍경, 마주하는 시선> (서촌 TYA, 2023), <불멍: 환영적 풍경이 재현된 방법들> (김리아 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ART FOR GREEN-공간에서 공감으로> (한전아트센터, 2023), <저-선생> (복합문화공간 오온, 2022)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정성원 Miriam Sungwon Chung

(b.2001)

정성원은 내면의 자아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작품마다 등장하는 사막여우는 자기 자신이며 친구이자 가족이다. 여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하며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모토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아리수갤러리, 2020), <The First Step> (기빙 플러스 갤러리, 2020) 등이 있으며, 다수의 국외 단체전과 두 권의 동화책을 출판하였다.



정은별 Jung Eunbyul

(b.1987)

정은별은 사회의 제도와 같은 권력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있고 그것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왔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파장에 주목하고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녹여낸 회화와 콜라주, 설치 작업을 주로 선보인다. 우리를 둘러싼 기준과 편견, 장벽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복합적인 정서를 섬세하게 감지하고, 그 속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작고 약한 움직임에 집중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불발이 연속된 시간> (성남큐브미술관, 2023), <여분의 움직임>(OCI미술관, 2021), <허기>(갤러리 밈, 2019) 등이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OCI미술관, 성남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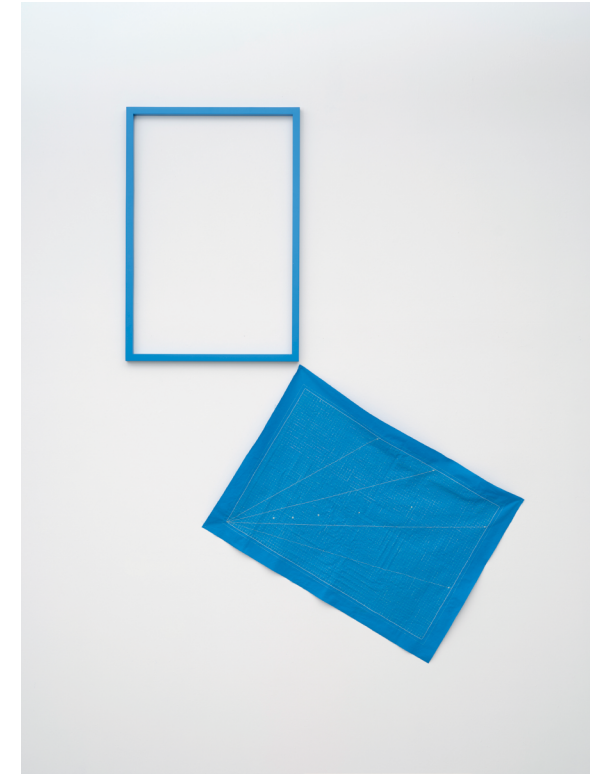
동그라미 그리는 강아지
63x46x17cm,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나무조각, 활동선, 종이, 채색, 실, 2021



정철규 Jung Choulgue

(b.1979)

정철규는 익숙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 보이는 것들을 배제하는 대신 새로운 접점이나 관계를 탐색하는 식으로 그것들을 어떻게든 전체에 포용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선불리 단정하고 규정하기보다는 표현 하나하나의 미묘한 뉘앙스를 섬세하게 헤아리고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전체로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시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회화, 설치, 손바느질, 실 드로잉으로 진화하고 있는 작업은 섬세하고 함축적인 조형 언어로 주변부의 작은 목소리를 따뜻하게 품으면서 다양한 입장들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 실천해 가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구름이 되었다가, 진주가 되었다가> (대전시립미술관, 2023),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GALLERY2, 2023) 등이 있다.

말하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Those who speak and those who do not listen
hand-sewn thread drawing on the suit fabric and acrylic on wooden frame, 99x69.5cm(fabric) 90x60cm(frame), 2022



조가연 Jo Gayeon

(b.1978)

조가연은 한국 산의 곡선과 암석 덩어리를 모티브로 재해석된 풍경을 그린다. 초현실적으로 변형된 산의 풍경과 덩어리들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하나의 풍경의 덩어리가 되어 생명력을 나타내며 캐릭터를 완성한다. 함께 그려진 기하학적인 도형과 곡선들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산이 아닌 새로운 초현실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풍경은 신체적인 기호로 은유화되기도 하고,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형상화되기도 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움직이고 자라나는>(누크갤러리, 2022), <인왕과 북한>(Lab_203, 2020) 등이 있다.



조민아 Cho Minah

(b.1986)

조민아는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의 이해관계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중적인 상황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갈등과 분열, 연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실에서 개인에게 발현되는 태도와 감정을 다루며, 관찰자 혹은 내부자의 시점으로 화면 속 인물들의 관계와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모호한 상황을 재구성하며 현재를 반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흔들리는 사이사이>(갤러리 밄, 2022), <흩어진 나날>(아트스페이스보안2, 2021), <빼기, 나누기 그리고 다시 더하기>(금호미술관, 2020) 등이 있으며 경기도미술관, 안양문화예술재단, OCI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조재 Jo Jae

(b.1990)

조재는 일상에서 발견된 순간들과 재료를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탐구한다. 특히 스크린을 통해 유통되는 이미지의 파편들을 추상적 형태로 변환하여, 상상의 공간을 물리적 현실과 연결한다. 개인적 상상과 현실 사이의 미묘한 교차점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언어와 이야기를 창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이미지와 편집툴을 바탕으로 디지털 이미지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지가 일종의 정보로서 누락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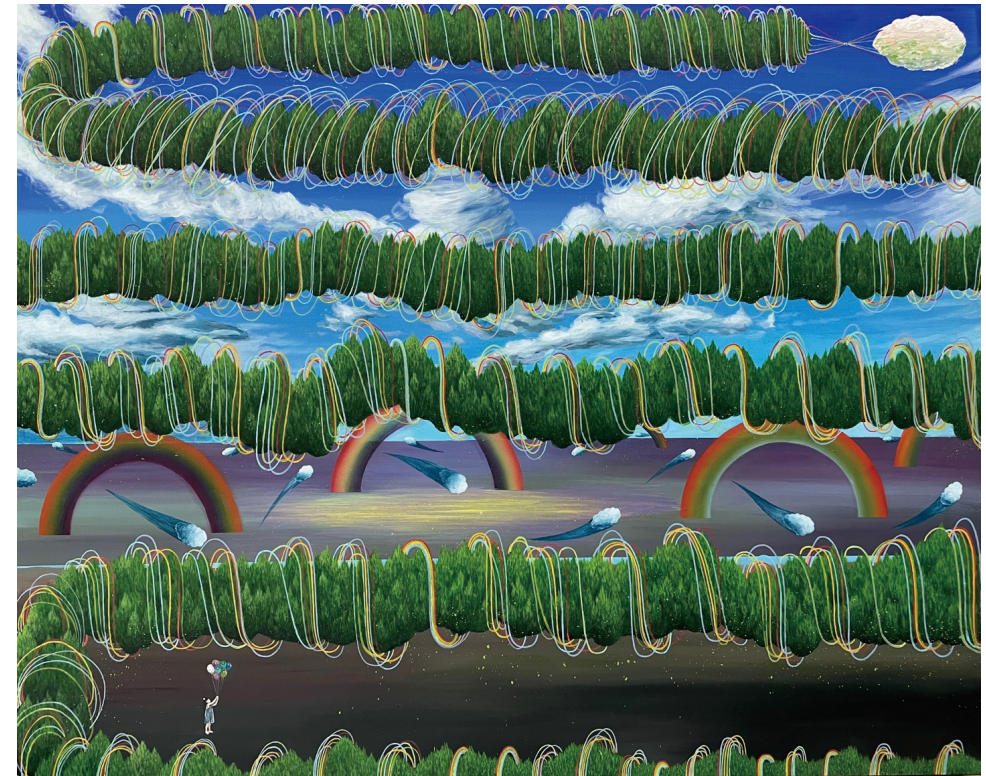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누락번역>(금호미술관, 2023), <Meeting Point>(G Gallery, 2021), <둔감제>(인터아트채널, 2020) 등이 있다.



조태광 Cho Taegwang

(b.1980)

조태광은 현실 속 대상, 이를테면 자연을 대변하는 나무, 수풀 등의 이미지에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이 의지를 갖는다면 과연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골똘히 상상한다. 어린 시절의 향수에서 비롯된 작업은 현실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상향을 꿈꾸며 자연의 일탈을 화면 가득 채운다. (<공존>(아트비트프로젝트, 2022) 전시 글 일부 발췌)



주요 개인전으로는 <Dream forest>(OCI 썬더버드, 2024), <Earth&Us>(휴맥스 아트룸, 2019) 등이 있으며 <공존>(아트비트프로젝트, 2022), <생생화화: 나를 찾아가는 길>(성남큐브미술관, 2020), <육감>(OCI미술관, 2015)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명은 Choe Myungeun

(b.2002)

최명은은 미술 전문가인 지인의 추천으로 15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 후, 그림 그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폐증을 폐쇄적인 성향과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거부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어린 시절부터 어울려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의 그림에는 늘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 친구, 이웃, 가족 등 작가와 함께 오늘을 사는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은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한다.



영국 이층버스
91x116.8cm, Acrylic on canvas, 2019



최봄이 Choi Bome

(b.1992)

최봄이는 매일의 기분에 따라 패턴이나 풍경을 거침없이 원색으로 표현한다.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는 작가는 새롭게 만나는 재료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사용한다. 그림을 그리고 난 후 작품의 제목과 그날의 기분을 “~입니다”, “~하고 싶었습니다”와 같은 기록도 남긴다. 작가만의 나무를 표현하는 회화의 방법을 계속 시도하며 최근에는 눈을 맞추기 어려워 힘든 인물을 다루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나뭇잎과 꽃
80.3x116.8cm, Acrylic on canvas, 2023

주요 개인전으로는 <내 안의 또 다른 나_봄이의 다섯 계절>(행궁동갤러리, 2023), <서른_나의 나무>(수원시가족여성회관 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2023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은철 Choi Euncheol

(b.1979)

최은철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아이러니한 이슈들을 비유와 은유를 통해 드로잉, 설장 공간 설치와 사진 및 영상 작업 등 다매체로 표현한다. 현대 사회의 극과 극의 대립 중 기후변화, 사회의 풍요와 빈곤 그리고 타자와의 대립에서 찾을 수 있는 간극의 유사점을, 작업을 통해 시각화하고 이슈화한다. 최근 기후 환경을 중심으로 연결된 주변 환경의 오브젝트나 과거의 유물을 가변적인 재료로 재현한 후 물질에서 다시 비물질로 치환하는 작업에 몰두해 있다. 이 물질의 순환성은 멈출 수 없는 도시 문명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시간성을 작업에 시사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황야로 도주>(예술의 시간, 2023), <Fata Morgana & A38>(갤러리 광명, 2023) 등이 있다.



최재이 Choi Jaeyee

(b.1974)

최재이는 '바람'과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한국을 알리는 작업을 한다.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실현을 꿈꿔보며 동양화 재료로 전통이라는 진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동시대 회화의 장르로 풀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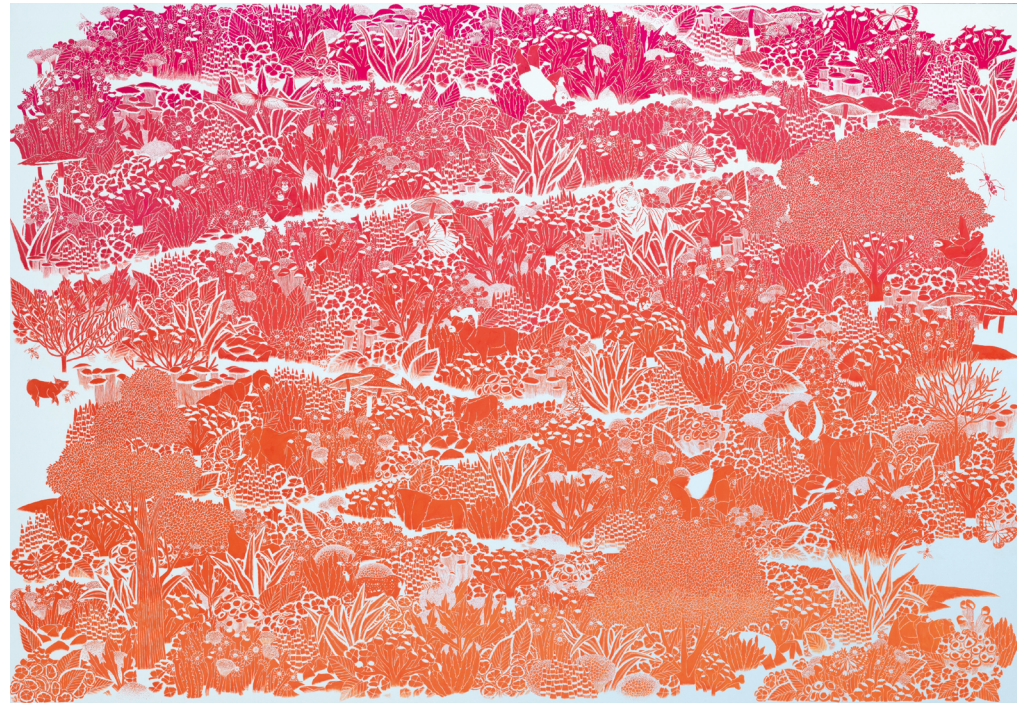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宮 of Joy>(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2023), <늦가을 행궁행차>(행궁길 갤러리, 2022), <“#” 소통하다>(갤러리 자인, 2022) 등이 있으며, <청룡의 출현>(사천미술관, 2024), <미르전>(갤러리선, 2024), <민화에 반하다>(하랑갤러리, 202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지현 Choi Jihyeon

(b.1984)

최지현은 지속해서 쌓이는 기억 속에서 '중요한 기억'이 어떻게 자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모든 기억을 갖고 살아갈 수 없듯이 중요하지 않은 기억은 자연스레 잊히게 된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중요한 기억, 잊혔지만 다시 살아난 기억, 평범한 기억 등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과정을 작업으로 표현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숨은그림찾기>(구리아트홀 갤러리, 2023), <아는 숲>(호아드 갤러리, 2022) 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김홍도미술관, 에이컴퍼니 등 다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생겨난 길
112.1x162.2cm, 장지 위에 채색, 2023



최하은 Choi Haeun

(b.1997)

최하은은 캔버스를 앞에 두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들이 떠오르고 그 느낌 그대로 서툴고 투박하지만 예쁘게 표현하려 노력한다. 작가의 홀로서기는 앞으로도 힘들 테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한다. 투박한 붓 자락에서 그려지는 꽃은 사람들이 향기를 느끼고 풀밭의 양들을 귀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날아가는 나비를 향해 뛰어가고, 산과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림 안에서 만큼은 작가는 장애 없이 자유롭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홀로서기>(구구갤러리, 2022)가 있으며 <꿈, 틈>(국회의원회관 아트갤러리, 2023), <한국장애인미술협회전>(이음갤러리, 2023)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피어나다
65.1x90.9cm, acrylic on canvas, 2023



최형준 Choi Hyeongjun

(b.1997)

최형준은 먹과 종이 등 전통 회화 매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제작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후적·동적 요소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를 여행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한 장소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2023년 6월 양주시 독바위 공원에 7개월간 머물며 설치한 구조물에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개인전 <야외 설치형 이젤>(탈영역우정국, 2023)을 진행하였으며,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다. <On Boarding>(성곡미술관, 2023), <합의형수목>(해움미술관, 2022), <P는 그림을 걸었다>(d/p, 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겨울 철새 사생,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20x25.5cm, 지본수묵, 2023



한지민 Han Jimin

(b.1981)

한지민은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오버랩될 때의 관계성을 내러티브가 담긴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판을 파서 찍어내는 볼록판화 기법을 작업의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밀한 묘사를 칼 드로잉(조각도로 파면서 그려내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야생 정원>(페이지룸8, 2023), <달을 먹은 그림자>(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777, 2019)등이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오산문화재단, 뮤지엄SAN 등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장식된 정원의 산책자 3
30x28cm, 정지에 리노컷&플라주, 2023



황진호 Hwang Jin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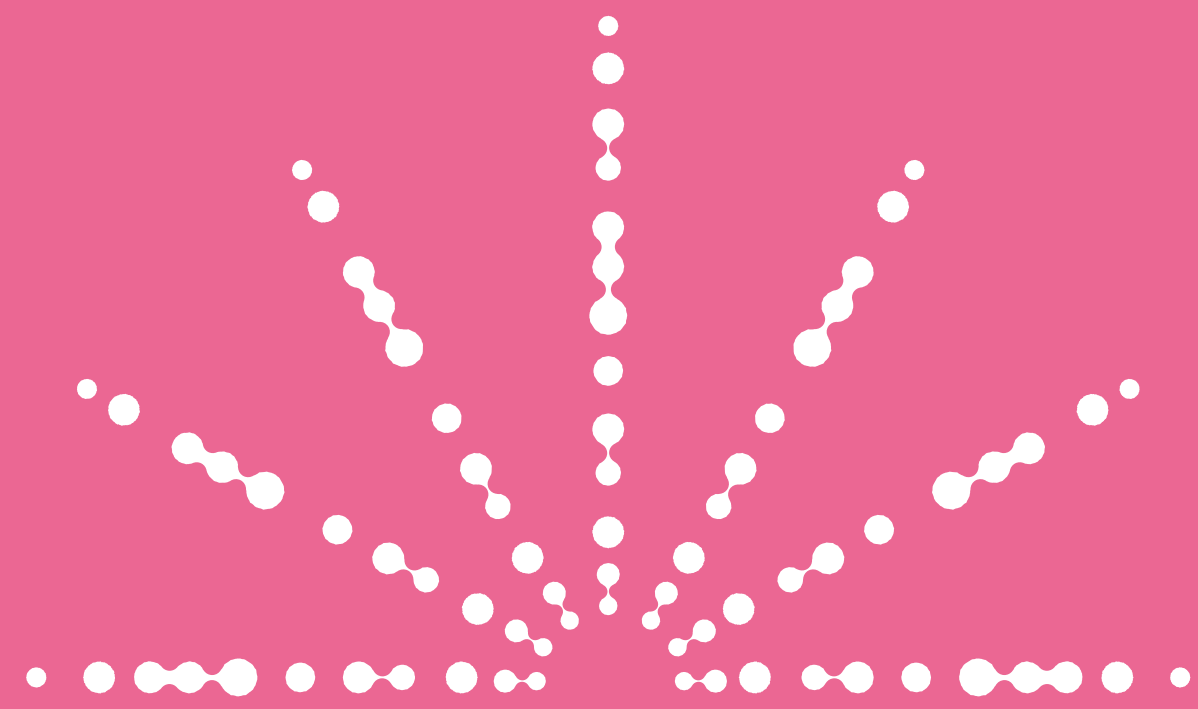
(b.1988)

황진호는 자폐성 장애 작가로, 눈앞에 보이는 대상과 그가 경험했던 순간의 기억을 작가만의 간결하고 정확한 선으로 그려낸다. '작가의 눈'이라는 창을 거쳐 필터링된 잘 정돈된 선과 깔끔한 채색으로 새로운 질서를 갖게 해준다. 여행의 기억, 동네의 꽃들, 인상 깊었던 카페나 책방 등 그의 그림 소재는 주변의 평범하고 친근한 일상들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일러스트 작가로서 다수의 조감도 작업에 참여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창밖 풍경>(이음갤러리, 2023)이 있으며, <세상을 밝히는 명작전>(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2023), <하나아트버스 공모전>(하나금융그룹전시장, 2023), <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홍익대 현대미술관, 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협력사업자 및 제휴사업자



갤러리 끼 GALLERY KKI

Gallery KKI

갤러리 끼(Gallery KKI)는 아트 디렉터이자 배우인 이광기 대표가 2017년 파주시 문발(文發, 문화가 피어오르는 곳)에 설립하였으며, 2022년 용산에 두 번째 공간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온라인과 라이브로 운영되고 있는 끼 옥션과 과감한 전시기획 등, 국내 미술시장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진작가들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개최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갤러리 끼는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작가들을 지속해서 발굴 및 육성하여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파주: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21-2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14길 45

031-8071-8822 / 02-711-8821

gallerykki.com

studiokki@daum.net

MUNIMAN MUSEUM

무늬만뮤지엄



무늬만뮤지엄은 무늬만 커뮤니티의 3.0 버전으로 오랜 기간 지역민과 교류하며 예술의 영역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아트를 실천해 왔다. ‘지역 동시대의 일상적 삶의 욕구가 어떻게 문화적인 삶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 평범한 삶 속에 존재하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의미와 가치를 읽고 번역한다. 이데올로기, 제도, 관습, 젠더 문법, 정상성, 인간중심주의, 제국 및 수도(권) 중심 사고 등에 의문을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 낸 경계와 계급에 균열을 내는 질문을 위트있게 던지는 작업을 전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중의 삶에 연동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작가의 깊은 고찰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번역하고 매개하는 시장을 만든다.

경기도 광주시 창틀 윗길 8, 2층

wskwork@hanmail.net



미술로(주)



Misullo

미술로 주식회사는 '예술가의 마음을 품고 미술품에 가치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설립된 온·오프라인 미술품 보관, 관리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국내 비주류 예술가의 미술품 수천만 점이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무방비, 무가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다. 이를 위해 한곳에서 보관, 관리, 상설 전시가 동시에 가능한 솔루션 <수장고형 전시관>을 통해 잠들어 있는 모든 미술품을 깨워 대중에게 선보이며 미술품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내그림>은 미술품 및 예술가 정보를 DB화하고, 예술가 및 미술품 소장자가 미술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전시, 임대, 판매 등 거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9층 에이05호

수장고형 전시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537번길 114, 마동(Y스튜디오)

070-7678-0002

myartwork.co.kr / misullo.com

myart@misullo.com



SAHNG-UP GALLERY

상업화랑은 2017년 을지로에 개관하여 현재 용산과 사직을 포함하여 3곳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의 영리와 비영리적 경계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분명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시대에 미술이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비평과 담론을 공유한다.

을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43, 3층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25,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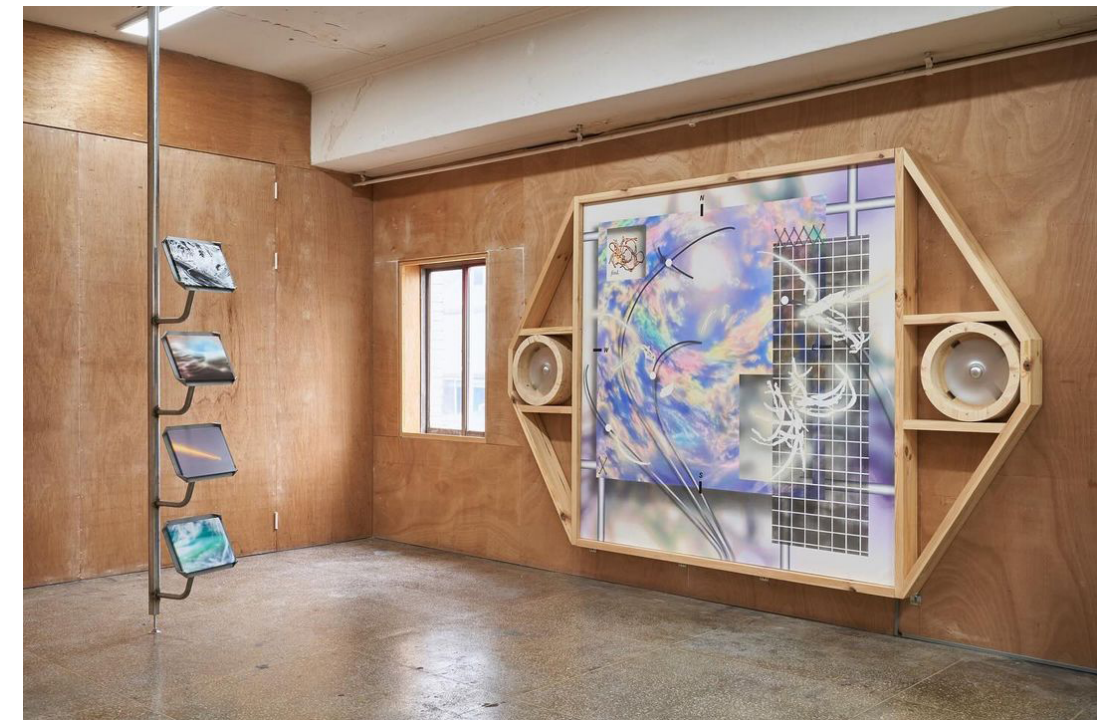
사직: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68, B1층

sahngupgallery.com

sahng-up@naver.com

상업화랑

SAHNG-UP
GALLERY



아르떼케이

arte k

arte K

아르떼케이는 동시대 및 신진 작가를 지원하여 미술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시작된 예술 전문 기획팀이다. 예술의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 아트씬에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 신선한 영감을 전달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전시기획과 아티스트와 컬렉터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시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시와 작가를 홍보하고, 전략적인 협업과 브랜드 콜라베이션을 통해 대중의 생활 속으로 예술을 스며들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4

02-6203-0101

arte-k.co.kr

artist@k-auction.com



KAN

칸 KAN은 2005년부터 정부 공공기관, 기업, 금융권의 미술작품을 기획, 관리해 온 미술품 관리 전문 회사이다. 현재 정부 기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미술품을 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며(2012~현재), 경기도 검수단 운영 사업(2019~현재)을 통해 5천여 점의 경기도 내 공공미술 작품을 상태 조사하였으며 신축 미술작품을 검수 관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405호

02-536-7195

kanarts.com

kanarts2021@naver.com



칸

KAN

서울옥션

SeoulAuction
EST. 1998

Seoul Auction

1998년 창립 이래 서울옥션은 한국 최초 미술품 경매 회사로 세계 속 한국 미술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경매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경매사로는 처음으로 2008년 홍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매년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그리고 홍콩에서 활발히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관객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 예술의 대중화’와 일상 속 미술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문화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취지로 2019년 서울옥션 강남센터를 개관했다. 개관 이래 복합문화공간으로 미술품 프리뷰뿐만 아니라 경매, 미술, 전시회, 아카데미, 협업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하며 대중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중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1길 11

02-395-0330

seoulauction.com

art@seoulauction.com



아트경기 채널 안내



인스타그램

@artgg_official

아트경기 최신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자



아트경기 누리집

artgg.ggcf.kr

아트경기 한 눈에 살펴보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경기문화재단 운영 공식 누리집



지지씨

ggc.ggcf.kr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2024 아트경기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24.08.13
총괄	이규석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장
기획	김진희, 이지희, 구소라, 고나운
협조	채지영, 이주영, 조담희, 김한솔, 이주현, 박도혜, 박준영, 김지은, 최서연, 이다현, 천다연
주소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37~8
이메일	artgg@ggcf.or.kr
누리집	artgg.ggcf.kr
디자인	STUDIO MATT (스튜디오엠에이티티)

